

### 국악·양악 어우러진 "팔만대장경 정신 음악으로" 호국불심의 선율

올해는 팔만대장경이 강화도에서 해인사 장경각으로 옮겨진 지 6백주년이 되는 해, 이 뜻깊은 해를 기념해 팔만대장경(국보 32호)이 음악으로 대중에게 다가왔다.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중립스님)와 김수철씨는 14일 오후 3시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팔만대장경' 음악 봉정식 및 설명회를 가졌다.

'팔만대장경' 시리즈 중 첫번째로 나온 이번 CD는 모두 4악장으로

#### 13일 대장경음반 봉정

로 구성돼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 악기와 서양클래식, 중국악기 그리고 현대의 신사시저 등 각각의 음악적 효과를 살리면서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팔만대장경이 태어난 배경,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표현했다.

제1악장 '서곡-다가오는 검은 구름'은 평화로운 멜로디로 시작돼 점차 감도는 전율을, 제2장

'전장에서'는 서양 중세의 교회 음악이 바탕에 깔리고 태평소 아쟁 피리 오고북 그리고 중국악기 열후가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전쟁이란 침략하는 자 침략당하는 자 모두의 인간성이 파괴됨을 나타냈다. 3악장 '구천으로 가는 길'은 신사시저가 주로 사용돼 전쟁의 비참함과 좋은 세상을 열망하는 민심을 담았고 4악장 '천상의 문에서'는 장엄한 서양클래식과 우리 소리와와 조화를 통해



◇14일 조계사에서 작곡자 김수철씨가 팔만대장경 CD음반을 부처님께 봉정하고 있다.

팔만대장경조성 공덕으로 위기와 국난이 극복되고 평화와 도래했음을 표현했다.

김수철씨는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대중음악적인 2집, 서양인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든 3집, 해인사의 소리를 담은 4집 등을 차례로 낼 예정"이라며 "음악공연과 세계시장 진출도 모색해 팔만대장경 정신화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봉정식에는 지관·암도·무관스님,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동참 '팔만대장경' 음반 출간을 축하했다.

구입안내 (02)3785-0632 <속>

### 불심시심 <128>

#### 술창의 만나질 줄음만 하라

一塊雲霞只寂然 한 언덕 구름 안개 다만 적연한 고요 속  
(일오운하지적연)  
十年瓶鉢遠人塵 십년의 바리때와 물병은 세상 연기 멀리하다  
(십년병발원인연)  
通知槐穴千鍾鍊 멀리 알겠다, 저 괴수나무 골의 천 종의 녹이  
(요지괴혈천종록)  
不博松窓半日眠 소나무 들창의 만나질 줄음보다 크지 못함.  
(불박송창반일면)

연파대사의 '산겨잡흥'에 있는 20수 연작의 하나이다. 십년을 하루같이 산 속의 고요함에 묻혀 있는 스님의 한가함을 진솔하게 표현했다. 스님으로서는 한가함일는지 모르나, 속인의 처지에서는 어찌된 지루함일 수도 있는 일이다. 이렇듯 한가하다든가 지루하다든가 상반된 개념도 처지에 따른 차이이지, 그 대상의 본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다. 여기서 선계니 세속이니 하는 경계가 있는 것이지, 자연사물 그 자체에 선속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바깥 세상은 어떤가. 저 흙세 길로 대유되는 괴수나무의 굴렁이다. 거기에는 녹으로 대표되는 부귀라는 이름의 재화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것을 쫓아내고 동봉서주하는 것이 속인들의 일상생활이다. 여기 산중은 어떠한가. 그저 저 솔바람이 스쳐주는 것이 고작이다. 여기서 참이라 참이라 그대도 저 자연과 나의 삶의 공간을 구별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장으로 경계짓는 공간의 넓이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야말로 육척과 대조되어 더 긴 시간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이 시의 수사적 묘미다. 이 긴 시간을 못로지 하나의 물병과 하나의 바리때로 만족하는 생활이니 세속과의 거리는 자연적으로 멀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시에 있어서 다음 구의 '말다(遠)'는 천연적 수사의 진솔함이다. 무엇이 멀다는 말인가. 멀다는 대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연히 속세의 삶이다. 연기란 사람살이의 수단으로서의 대표성을 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것이 인연(人緣)이라 하게 된 이유이다. 아울러 속세의 먹이가 화상으로 대표되는 연기였다면, 산중의 병이 나 바리때는 이 속세의 먹이와의 구별로도 상징지워진다 할 것이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희곡작가 이강백씨(51). 예술의 전당이 2년마다 한번씩 우리 연극계의 대표적인 연극인을 선정하여 집중조명하는 '오늘의 작가' 시리즈 세번째 인물로 선정돼 열리고 있는 '이강백 연극제'가 불교작품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4월 16일부터 '내마'(74년)' '쥬리아의 사람들'(82년)' '영월령 일기(95년)'에 이어 '느낌, 극락같은'이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예술의 전당 토크극장에서 공연되는 것. '느낌, 극락같은'은 중도라는 이상적 경지를 지향하는 작가의 동양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희곡이다. '극락같은'은 특히 '오구' '파우스트' '문재적 인간 연산' 등 숭한 화제작을 양산한 연극계의 거장을 만나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연극에는 5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최고의 불상제작자 함모진, 그의 두 수제자인 동연과 서연, 함모진의 무남독녀 함이정, 함이정의 아들인 조승민. 동연과 서연은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둘 다 스승의 딸인 함이정을 좋아한다. 그러나 불상제작에 대한 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동연은 불상을 완벽한 형태로 만들어 그 속에서 부처의 마음을 찾으려 하고 서연은 부처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면 완벽한 형태는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 불교 연극 '느낌, 극락같은'

22일~6월14일 예술의 전당 '이강백 연극제' 4번째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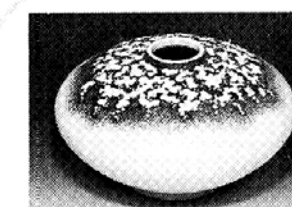
## 화합과 중도 '가치찾기'



◇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불교연극 '느낌, 극락같은'의 한 장면. 우리시대를 대표하는 극작가 이강백(사진 위)의 희곡이다.

다. 그러나 외적인 것을 더 중요시 하는 세속의 잣대로 결국 함모진의 후계가 동연에게 돌아가고 이로 인해 동연은 최고의 불상제작자라는

우 등을 만들다가 죽음에 이른다. 어느 편의 삶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가. 현실에서는 '형식'이 언제나 우위를 차지하는 것 같지만 결



#### 설봉스님 도예전

29~6월4일 어린이와 청소년포교에 헌신하고 있는 설봉 롯데화랑 스님(무애원)이 29일부터 6월4일까지 서울 잠실 롯데백화점 9층 롯데화랑(02-411-6933)에서 생활 도자기전을 연다.

이번 도자기전에는 스님이 직접 구어낸 자기 향로 촛대 등 불구와 식기 세트 장신구 등 도예작품 1백여점을 감상할 수 있다.

#### 원성스님 산종일기전



24일까지 마산 대우갤러리 '동승전'을 주제로 여러차례 개인전을 가진 원성스님(중앙승가대 4년)이 18일부터 24일까지 마산 대우백화점 갤러리(051-40-5000)에서 '산종일기'전을 갖는다.

곰 사슴 다람쥐 토끼 등 산짐승들, 소나무 국화 연꽃 개나리 등과 어울린 천진스런 동승의 하루일과를 해맑게 묘사한 작품 80여점을 볼 수 있다.



#### 강행원씨 개인전

21일까지 운산 강행원씨(민족환경운동본부 교예술인연합회 회장)가 21일까지 광주 남봉미술관(062-232-6236)에서 8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울릉도 전경' '저리도 고운 웃음' '봉인사의 봄' '장백폭포' 등 우리 산하의 아름다운 자연과 '카나강' '킬리만자로' 등 해외 풍경을 그린 수묵채색 작품 60여점을 관람할 수 있다.

#### 종교예술제 10월9일 개막

문화예술을 매개로 종교상호간의 이해와 폭을 넓히고자 마련된 '98 대한민국의 종교예술제'가 10월9일부터 27일까지 음악 미술 영화 학술세미나를 중심으로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된다.

#### ◇종교예술제 주요일정

종류	일시 및 장소	주관
음악제	10.27 음악당 콘서트홀	불교방송
미술제	10.9~16 미술관 3층 4·5전시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영화제	10.9~20(토·일 제외) 한국영상자료원 영상실	천주교중앙협의회
학술 세미나	미정 사예관 컨퍼런스홀	천주교중앙협의회

#### 불광·목아박물관 주최 부처님그림 그리기 대상에 김호빈양



◇종합대상을 받은 김호빈양의 그림.

일각 불광과 목아박물관이 공동 주최해 지난 5일 갈상사에서 열린 제4회 전국어린이 부처님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김호빈(행신초등 6)양이 종합대상인 문화관광부장관상을, 김민재(하남덕충초등 3)군이 대상인 봉축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부처님오신날과 어린이날 기념으로 열린 이날 부처님그림 그리기 대회에는 전국의 어린이 1천5백여명이 참가했다.

#### 불교위원회 지정

### 불교 이미지 통일을 위한 「불자의집」 교재



특징 표면에 예복 처리하여 부식이나 탈색의 염려가 없으며 반영구적입니다.

▲크기: 5.5cm×7cm  
▲보급가: 1개당 1,000원  
▲200개 이상 제작시 사할명을 넣어 드립니다.

#### 감로기획

서울·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02)723-4306~7, 팩스: (02)738-8682

#### 여름불교학교(현수막, 모자, 부채) 전문

#### 참사랑 열린교육.....변화하는 대학

### '98학년도 후기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불교대학원 (아간) ☎ 260-3097-8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2. 모집학과 및 전공
    - 가. 불교학과 불교학, 선학
    - 나. 불교사학과 불교사, 예술사
    - 다. 불교문화복지학과 사회복지학, 포교학
  3. 원서교부 및 접수
    - 1998. 6. 4(목) ~ 6. 12(금) 09:30~17:00(토요일요일은 제외)
  4. 전형일시 및 장소
    - 1998. 6. 18(목) 14:00 불교대학원 교학부에 제시함 (90주년 기념미술관 2층)
  5. 전형방법
    - 가. 석사학위과정
      - 1) 일반전형 필기시험(영어, 전공) 및 면접
      - 2) 특별전형 서류전형 및 면접(교사·사회지도자 인사물 유선)
    - 나. 연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교사)
  6. 특전: 조계종 재직 승려 및 공무원 교직원 군인 불교인문인 소정의 장학금 지급하며 해외자대대학 유학 및 연수에 참가할 기회 부여
- 문화예술대학원<신·원입생> (아간) ☎ 260-3606-7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2. 모집학과 및 전공
 

문예창작학과	문예창작
연극영화학과	공연예술 영상예술
불교예술문화학과	불교미술 한국음악 문화재
환경예술학과	환경예술
  3. 원서교부 및 접수
    - 1998. 5. 11(월) ~ 6. 12(금) 10:00~17:00 (토요일요일은 원서인 교부)
  4. 전형일시 및 장소
    - 1998. 6. 20(토) 10:00 본 대학원(학술문화관 K동 3층)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TEL (02)260-3114 FAX (02)260-3692  
인터넷: http://www.dongguk.ac.kr/DOU/

#### 동국대학교

### 제 11 회 까치마을 여름 수련대회 모집 안내

#### "여름퍼서는 자녀와 함께 가족수련회"

저희 까치마을에서는 여름 방학을 맞아 아래와 같이 가족수련회 및 청소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수련이란 심수선언으로 자기마음을 수양하고 몸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문명과 이기주의로 나빠져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IMF라는 경제한파가 왔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매사에 감사하고 남을 위하는 자비심과 협동심, 인내심으로 더불어 함께 살고 나누어 주는 布施行으로 공동체의식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를 떠나 부처님 품안에서 가족이나 이웃의 소중함을 알고 자연의 푸르름 속에서 자녀들의 심성(EQ)을 길러주는 수련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차	대 상	일 자	인 원	회 비
1차	부모은중수련	7월 23일~25일(2박3일)	50 가족	무 료
2차	청소년	7월 26일~29일(3박4일)	100명	1인 30,000원

- 장 소: 까치마을 수련원
- 대 상: 1차 - 부모은중도 법보시 동참가족(화가 김이랑님과 함께)  
2차 - 초·중·고생 3차 - 일반가정 가족
- 준 비 물: 쌀 1되, 필기구, 세면도구, 양말5켤레, 모포, 수건5장, 손전등
- 접수마감: 6월 30일 마감(수련회 당일엔 접수 안됨)
- 접 수 처: 까치마을 02)873-6646~7 FAX : 02)873-6648  
(우편 151-0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6동 391-9번지)
- 기 타: 1. 후원 공양 보살님 및 지도자 자원봉사 모집  
2. 회비 송금처: 국민은행(812-21-0329-747 엄옥상)  
3. 회비 송금이 되어야만 접수가 됨

#### 불교사회복지 까치마을 촌장 법 전 합장